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2/21(月)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20(日) 11:00부터

문의 : 경제정책팀 이종명 팀장(02-6050-3442), 이상현 과장(02-6050-3443)
대외협력팀 이성우 팀장(02-6050-3101), 김형모 과장(02-6050-3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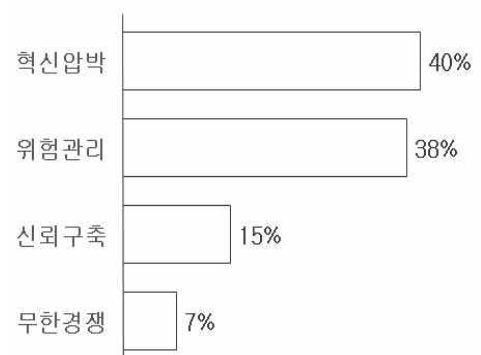
상의 회장단의 2016년? ① 혁신압박 ② 위험관리 ③ 신뢰구축 ④ 무한경쟁

- 전국 71개 상의회장단 조사 ... “바다속 금붕어 안돼”, “시장개혁 자신감 불어넣어야”
- 2016년 키워드: 혁신압박(40%), 대외리스크 관리(38%), 신뢰구축(15%), 무한경쟁(7%) 順
- 2016년 긍정신호: 한중 FTA로 수출기대(63%), 달러강세(13%), 구조개혁 진전(11%) 順
- 올해의 정책 5選: 한중 FTA 비준(79%), 2단계 규제개혁(53%), 노동개혁 첫발(40%) 順

‘① 혁신압박 ② 위험관리 ③ 신뢰구축 ④ 무한경쟁’ 전국의 상공인 대표들에게 2016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같이 답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71개 지역상의 회장단을 대상으로 ‘전국상의 회장단이 바라본 2016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회장단의 40.0%는 저성장 뉴노멀시대의 ‘혁신압박’을 꼽았고 이어 중국경제 성장둔화 등 ‘위험관리’ (38.2%),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신뢰구축’ (14.5%), 新샌드위치 시대의 ‘무한경쟁’ (7.3%) 순으로 응답했다. .

<그림> 상의 회장단의 2016 키워드



제주 회장 “금모으기 때처럼 뚝뚝 뭉쳐야” ... 사천 회장 “금리인상 도미노 안돼”

실제로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은 “2016년엔 한층 더 경쟁이 심화된다. 그렇다고 바다속 금붕어는 되지 않겠다. 무늬만 화려한 혁신이 아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고 전했고, 최상곤 경기북부상의 회장은 “제2의 IMF시대라 생각하고 경제혁신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대외리스크를 꼽은 구자웅 양산상의 회장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둔화 등 위험은 높지만 이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탄력적인 정책의 묘를 발휘했으면 한다” 고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은 덧붙였다.

내년이 총선의 해인만큼 경제위기 뿐 아니라 대립프레임을 해소할 수 있는 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은 “정치의 해다. 1997년 금모으기, 2002년 월드컵 4강때처럼 한국국민 특유의 역동성으로 뚝뚝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2016년에는 ... 말. 말. 말.

김무연 안산	“바다속 금붕어 안돼, 뼈 깎는 구조조정”
최상곤 경북	“제2의 IMF라 생각으로 경제혁신”
김대형 제주	“금모으기 때처럼 뚝뚝 뭉쳐야”
정기현 사천	“금리 인상 도미노 안돼”
김대호 춘천	“시장개혁 자신감 불어넣어야”
정백우 이천	“한중FTA 2년차로 1경 내수 열려”

내년 키워드로 ‘무한경쟁’ 을 꼽은 김대호 춘천상의 회장은 “경제는 심리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국내외 시장개혁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상의 회장단은 한중 FTA, 달러강세 등으로 수출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 ‘내년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를 묻는 질문에 회장단의 62.5%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대중국 수출 및 투자수익 개선 기대’ 를 꼽았고 이어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12.5%), ‘규제, 노동부문 구조개혁 진전’ (10.7%), ‘경기개선 기대’ (5.4%) 순으로 응답했다.<기타 8.9%>

정백우 이천상의 회장은 “한중 FTA 2년차를 맞는 우리로서는 1경 내수시장이 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이라고 말했고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은 “미국이라는 성장엔진 덕에 달러강세가 이어지고 노동개혁이 성공을 거두면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청신호” 라고 말했다.

2016년 부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는 ‘중국경제 둔화’ (48.6%),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수출감소’ (31.1%), ‘엔저 지속’ (12.2%), 테러위협, 북핵리스크 같은 ‘예기치 않은 리스크 등장 가능성’ (6.8%) 등을 꼽았다.<기타 1.3%>

‘올해의 정책 5選: 한중 FTA 비준, 2단계 규제개혁, 노사정대타협으로 개혁 첫발 ...

전국상의 회장단의 78.5%는 2015년 ‘올해의 정책 5選’ 1위로 ‘해를 넘기지 않은 한중 FTA’ 를 꼽았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기대이익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장단이 선정한 올해의 정부정책 5選을 살펴보면 ‘2단계 규제개혁으로 지역의 투자걸림돌 제거’ (52.3%), ‘노사정대타협으로 노동개혁 첫발’ (40.0%),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 (26.2%), ‘원샷법 제정 추진’ (26.2%)이 지목됐다.<복수응답>

올해의 정책 5選	
① 해를 넘기지 않은 한중FTA	79%
② 2단계 규제개혁 성과	53%
③ 노동개혁 첫발	40%
④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26%
⑤ 원샷법 제정 추진	26%

속초 회장 “규제철폐성 철폐, 관광객 30%↑” ... 창원 회장 ‘원샷법으로 위기대응력 제고’

김재기 속초상의 회장은 “2단계 규제개혁으로 동해안 일부 해안철조망이 철폐되면서 예년보다 관광객이 20~30% 늘었고 상가가 줄지어 들어서기도 했다” 며 “규제철폐성으로 꼽히는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노사정대타협과 관련, 이해규 원주상의 회장은 “유연한 노동시장의 문이 조금씩 열려 역동적 한국경제 가능성을 다시 꿈꿔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원샷법 제정추진과 관련,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중국의 추격과 전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샷법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의 원포인트 조언.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라”

쉽지 않은 여건속 우리경제가 미래번영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회장단은 이렇게 조언했다. ①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30.6%). 중장기 혁신계획이 단기이슈에 매몰돼선 안된다는 것. ②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27.8%) ③ 팀플레이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13.9%) ④ 민간주도의 경제혁신시대를 맞아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11.1%)고.<기타 16.6%>

이동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FTA로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구축했고 수출은 세계 6위로 1계단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우리사회 각 경제주체들이 좀 더 긴 호흡으로 경제혁신에 힘을 모은다면 선진경제라는 미래가 눈앞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